

삼락농정대상 최적의 수상자 찾는다

전북도, 보람찾는 농민·제값받는 농업·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 수상자 선정 돌입

제2회 전북도 삼락농정대상 후보자로 총 24명이 접수된 가운데, 전북도는 최적의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상분야는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3개 부문이다.

수상대상은 삼락농정 실현에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지대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마을, 식품사업자, 농림수산물 단체 및 관계자, 학계관계자 등이다.

단, 기존 도민의 장이나 자랑스런 전북인대상 수상자 및 현재 삼락농정 위원(17명)은 제외한다.

후보자 접수는 각 시·군을 통해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7일까지(60일간) 진행했다.

그 결과 보람찾는 농민 부문 6명, 제값받는 농업 부문 10명, 사람찾는 농촌 부문 8명 등 총 24명이 접수했다.

도는 우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공적, 평판, 여론 및 도덕성, 애환심 등을 확인한다.

이후 9월중 외부전문가 50인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에 들어간다.

해당 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 3명, 총 9명을 선정해 본심사에 추천한다.

본심사 추천받은 9명은 10월 중 외부전문가 5명을 포함 15명으로 구성된 본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다.

본심사위원회는 부문별 후보 3명중 1명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전북도는 오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수상자를 시상할 계획으로, 최종 수상자 3명에게는 메달 및 상패를 수여한다.

또한,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영농·영여교육 강사 우선 위촉, 전북 데미캡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 등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에 준해 예우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 삼락농정 대상은 도내 삼락농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최고 영예를 부여하는 상"이라며 "삼락농정대상의 가치에 부합한 최적의 농어업인이 수상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동물질병 연구 분야 업무협력·소통 확대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전북대 수의과대학, 업무협력 양해 각서 체결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13일 동물질병 연구 분야 대의 협력 확대와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업무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도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과 산업동물에서 문제되는 주요 동물 질병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동물 전염병 예방과 진단을 위한 학술연구 협력, ▲동물 질병 발생 등 관련 정보공유, ▲실험·조사 연구 협력 및 검사자료 공유, ▲학술행사·전문가 세미나 등 상호협력, ▲연구에 필요한 기술 교환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도내에 발생하는 산업동물의 주요 전염병의 효과적 방역관리에 기여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신종·변종 동물 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관 간



활발한 인적·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유행하는 동물 질병에 대한 조사를 통한 백신·치료제 등으로 실용화될 수 있는 동물 질병의 기초 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축산 농가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동물 전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의 사전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각 기관이 지닌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 공모 도내 2개 업체 선정

전북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산물 관련 전국단위 공모에 선정되며, 도내 임업인의 소득증대가 활짝 열릴 것으로 보인다.

도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산림소득 공모사업(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부문)'에 도내 2개 업체가 선정되며, 국비 11억 7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 부문 공모에 '익산시 농업법인 케어팜'과 '무주군 산마을영농조합법인'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익산시 농업법인 케어팜'은 국산 임산물인 감초와 도라지를 활용한 기능성 제품인 발효 감초 농축액, 발효 도라지 농축액 및 스프레이 드라이 등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국비 6억 7천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무주군 산마을영농조합법인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도라지를 가공해 도라지 정과와 도라지칩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기존 시설을 보완, 리모델링 및 가공 기계 확충에 국비 5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임산물 수집

및 가공·유통 부문에 완주군 고산농협(뽕은감), 임실군 지리산약초조합법인(약초류) 2개소가 선정된 바 있다.

허진 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소득사업 중앙공모에 참여한 임업인에게 선정에서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이번과 같이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남아있는 산림복합생산단지 등 공모사업에도 신중해 도정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실현으로 임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규제혁신·소송수행 역량강화 교육

전북도가 도내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및 소송수행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 규제개혁 필요성과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소송 대응 능력을 향상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규제개혁 방향은 양적 규제 개선에서 벗어나 질적 규제개선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성 연구원은 "규제개혁이란 모든 규제에 대한 철폐·완화가 아니라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필요한 규제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이 진정한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전도시공사 법률자문팀장 유원진 변호사는 행정·민사소송에 대한 기초실무와 소송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과정을 다양한 사례와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며, 소송수행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유호상 기자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도비 지원

전북도가 논에 비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 및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농림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지속적인 쌀값 상승으로 벼회귀 농가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는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 가격 하락 및 농가 소득 감소 등의 문제에 대비하고자 도 자체적으로는 논 타작물 정책에 참여한 농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11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ha당 60만 원씩 총 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검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웅변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 평생교육사 • 심리상담사 • 사회복지사 •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고급,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전북 만들기 총력

도·경찰청, 연말까지 피해 예방 특별기간 운영... 금융 취약지역 대상 교육·캠페인 활동 등 전개

전북도가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9월부터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며, 예방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명절 전·후로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연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별기간에는 기존에 운영되던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찾아가는 금융복지 서비스는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지원 및 이와 연계 채무교육, 법률상담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소상공인 마케팅·금융지원, 정신건강 상담을 지원한다.

전북신용보증재단내 금융복지종합지원센터가 주축이 돼 정신건강복지센터·금융감독원·법률홈터 등이 참여한다.

시·군 전통시장 등 금융취약지역과 노인, 다문화, 탈북민,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관련 교육과 병행한



전북도가 전북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복지 서비스를 원하는 마을, 공동주택 및 법인, 단체 등에서는 전북도 투자금융과(280-3865)나 전북신용보증재단(230-3391)로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어떠한 명목이든 전화만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출처를 알수 없는 앱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을 클릭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청, 자치경찰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자치경찰 위원회 출범과 함께 행정과 경찰이 한 몸이 돼 도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